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31권 10호(가해) 2011.1.30

[묵상]

행복

幸福하머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溫柔하고 慈悲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느님을 뵈고 천국을 이루리라 산구세주

글 : 남영선 루시아 / 부산교구 서예인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 행복은
소유해야 할 이런 저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참 행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예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이며
하늘 나라를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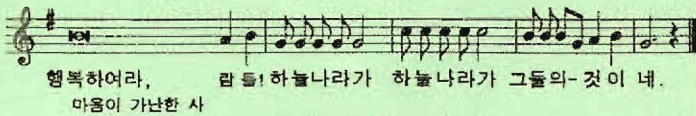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병순 겔마나 & 모복기 데레사, 김인영 베드로, 강소아 & 손영달
	(생)성호재 시몬 & 영임 엘리사벳 & 유진 로렌스, 정해홍 요셉, 홍광선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김용팔 다두, 윤재림 마리아, 김순선 아녜스, 윤희중, 엄은섭 도로테오,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석진남, 황해은 루시아, 서연이 안나, 박송희, 지용애, 장귀옥, 최창용 스테파노, 이순국 & 김덕순, 김홍배 루까, 이승록 베르나르도,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례 마사
	(생)김캐롤 데레사, 김시연 아가다, 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가정, 윤재림 마리아를 위해 기도해주신 분들,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 박보숙 아녜스, 강태규 베드로, 차민경 루시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스바니아 예언서(Zephaniah) 2,3; 3,12-13

화답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6-3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 음 마태오(Matthew) 5,1-12

영성제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4	176	193
봉헌	270	231	267,270
성체	418	284	282
파견	383	200	245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국법과 도덕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그것이 자연법에서 도출된
것인 한도 내에서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하
튼 자연법과 대립된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
의 타락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 가르침의 첫 번째이면서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 기본
권과, 모든 권리들의 원천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법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권은 모든 개인들에게 속한 권리이다. 따
라서, 무고한 인간 존재를 낙태나 안락사를 통해서 직접적으
로 살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들은 모든 개인들에게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들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안락
사의 경우 당사자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요청할 때는 거
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러한 요청을 합법화하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정하는
모든 국가는,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모든 무고한 생명
의 보호라는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자살-살인의 경우를 합법
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경감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양식을 향해
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와 안락사를 승인하고
증진하는 법들은 개인의 선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공동선에도 배치되는 법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에는 진정한
법적 효력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사회가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로 인도하기 때문에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는 가
능성에 가장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 결과적으로 낙태와 안락
사를 승인하는 국법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참되고
도덕적인 구속력을 지닌 국법이 아닌 것이다.

73). 따라서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
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들이다. 그러한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
상의 의무는 없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
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
부터 사도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형
성된 공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환기시켰다.(로마 13,1-7;
1베드 2,13-14 참조).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한다."(사도 5,29)는 사실도
분명히 경고했다. 구약 안에서 우리는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
들에 관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명령에 저항하는 의미심장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파라오가 갓난 사내아이들을 죽이라
는 명령을 내리자 히브리 산파들은 이를 거부한다. "산파들
은……에집트 임금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
려주었다."(출애 1,17). 그러나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궁극적
인 이유는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했기"(출애 1,17) 때문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며 하느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을 알아 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요?

행복이란 어떤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사람에게서는 저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 즉 식욕, 성욕, 미에 대한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등등의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과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과연 우리 존재의 심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상의 욕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 질 수 없음을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지워 버릴 수 없는 갈망을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조건이 붙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상처는 우리 영혼에 깊은 어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넓은 의미에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이 죄와 죽음은 나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전염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늘 어떤 꾸며진 모습을 살아가게 만드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하느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그분께 잘 해드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래하는 모습, 조건있는 사랑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잘 해드려서 그분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조건 있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생긴 마음의 어둠과 영혼의 상처는 온전하게 치유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현영화 베로니카
제물봉헌자			P.V. 1 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미사 안내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미사가 2월6일(주일) 오전 11시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
을 모시고 거행됩니다. 특히 이 미사 중에 성인 교우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 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오전 11시(아침미사 7:30)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이장환 본당 신부님

* 총리허설 : 2월5일(토) 특전미사 후

● 이날은 학생미사(9:30am) 없습니다.(주일학교 휴강)

◆ 제대회 신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30일) 낮미사 후 강당
- 회계보고와 점심나누기 친교, 신입회원 환영
- 문의 : 오창애 안나 제대회장 ☎(310)974-2857

◆ 백삼위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30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김성현 유스티노 & 최연 루치아 본당 대표부부

◆ 신묘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 2월3일(목)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본당 30주년 기념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사무실)를 제대앞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 주간별해설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성전
- 지도 : 이장환 신부님(이주간 암송성구 주보 5면 참조)
- 렉시오 디비나 성경반은 친구약 통독 끝날때까지 휴강

◆ 전신자 모두 예비자를 봉헌합니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 봉헌 예비자를 모집함

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세례식 일정은 추후 알립니다.

- 환영식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3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백삼위 골프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2일(토) 오전 9시20분
- 장소 : Chester Washington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도 골프회 총무 ☎(310)965-0002

◆ 제1회 백삼위 서예모임 작품전시회

- 전시기간 : 2월19일(토)~2월 27일(주일)
- 축하 리셉션 : 19일 오후 1시, 강당
- 무료가혼 써주기 : 서예가협회장 일호 선생(한중일 초대작가)께서 백삼위 교우들을 위해 당일 가혼을 무료로 써드립니다. 문의 ☎(310)374-1572 이명렬 라파엘

◆ 간단한 통증 상담 및 Care(조치)

- 일시 : 매주 목요일 성경통독 전후 30분씩, 장소 : 회의실
- 대상 : 요셉회, 안나회 중심 교우들
- 문의 : 권진열 피데스 ☎(310)800-3592

◆ 성모회 김치병 수집합니다.

백삼위 성모회표 김치판매를 앞두고 집에 사용하지않는 빈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데레사 ☎(310)508-2912

◆ 새해달력 광고 후원금 보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30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2월6일(주일) : 본당설립 30주년맞이
전교우 친교장에서 점심 나누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관기
	김낙기	김병학	김상규	김정웅	김진숙	김찬구
	김충섭	나경흠	노새미	노찬술	노천수	모은기
	박광자	박봉성	박순자	박정희	박주현	변혜경
	송준규	신순철	안민수	엄지선	오명섭	육근주
	이명자	이병우	이상규	이용식	이희영	정동호
	정해홍	조경림	최수복	최원석	한혁수	황지영
	차안젤라	송마이클				
합계 : \$4,265						
미사헌금 : \$2,987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김관기	김낙기
	김병학	김찬구	김충섭	나경흠	노새미	노찬술
	노천수	모은기	박광자	박봉성	박정희	변혜경
	신순철	안민수	엄지선	이명자	이병우	이상규
	이용식	이희영	정동호	정해홍	조경림	최수복
	최원석	한혁수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2,475						
감사헌금 : 권영환						

공지사항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 2011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 오늘 주일(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최소)
- 신청 :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422-0066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받습니다.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일시 : 2월12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상영영화 : 'Click'(Adam Sandler 주연)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 * 피정비 : \$20
- 올해일정 : 2,4,6,10,12월 두번째 토요일

◆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5일(토) 낮 12시
- Royal Vista 골프코스
- 참가비 : \$100(라운딩, 카트, 디너 포함)
- 문의 : (323)734-4946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전신자 친구약 통독 5주간 암송 성구 ◆

- 1월31일(월) 이사야서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 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26,7)
- 2월1일(화)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품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이돌이다. 믿는 이는 물러서지 않는다.(28,16)
- 2월2일(수)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32,15)
- 2월3일(목)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거래들아! 주의를 기울여라.
(34,1)
- 2월4일(금)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37,20)
- 2월5일(토)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42,1)
- 2월6일(일)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45,8)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대회 신년모임	낮미사 후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기념미사 및 성인 견진성사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찌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483-5476 1/7(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8(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4(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1/14(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바오로 316-7819 1/8(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김미성 에스텔 720-2876 1/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인석 비오 433-9075 1/21(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정 크리스티나 750-4051	이재용 안드레아 750-4051 1/8(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327-1658 1/14(금) 오후 7시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운진 카타리나 997-5545 1/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윤무 스테파노 377-9989 1/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금영도 베드로 541-4706 1/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한애경 율리아나 541-5370 1/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영숙 수산나 544-5078 1/11(화) 오전 10시30분

2010년도 교무금 및 성전헌금 입출금 보고

교무금 현황				성전헌금 현황										
수입	미사헌금	32%	155,141.51	성전헌금	95%	149,957.50								
	2차헌금	구유 예물/은퇴 수도자 기금 포함 4.4%	17,644.50	100%	감사헌금 4.6%	7,225.00								
	교무금	49%	240,135.00		Recycling 0.4%	642.36								
	기타	주보 / 달력 광고비 2.4%	11,600.00		소계	157,824.86								
		성당 사용료 0.2%	950.00		기타 수입 / 환불	100.00								
		10% 특별목적헌금:아이티/피아노/신학생 차량	50,559.25		(Loan Fee 환불)									
		2% 사순 애금 (Together in Mission)	8,385.00		소계	100.00								
		2% 동전 모으기/한남 마켓 /Refund 기타	7,909.08											
100%	수입총계		492,324.34	수입총계		157,924.86								
% of Income	지출	인건비	급여	29,628.00	성전 Loan 재융자 (은행 수수료)	4,545.43								
			사제 & 사무장 활동비/수도자주거비	55,602.40		소계 2.9 %	4,545.43							
			의료보험	9,898.44	성전 LOAN PAYMENT:월서은행 (Loan#9185066)	158,115.38								
			차량구입비	1,635.01		소계 97.2%	158,115.38							
			사제 은퇴 기금	3,000.00			* Interest Principal	114,224.00						
			20% 소계	99,763.85		43,891.38								
		사목비	전례비	10,492.91		지출총계		158,115.38						
			주일학교 지원비	26,900.00	2010년 결산			교무금구좌 순 지출 결산: 잔액 7%	36,444.01					
			종교 교육비	4,493.27				12 / 31 / 2010 기준 교무금 은행 잔고(Wilshire Bank)	226,459.84					
			한국학교 지원비	4,053.86					미 지불 체크(Uncleared Checks & Payments)	16,562.35				
			산하단체보조비	27,332.79						참조: 주일학교 기금(Sunday School Fund) 입출금	-			
			전교비 / Homeless돕기/ Taxi Svc.	17,600.39							Petty Cash 보관	200.00		
			사제/수도자/부제 피정 & 회의 참가비	4,360.08								12 / 31 / 2010 기준 성전헌금 은행 잔고	3,500.00	
			행사비	4,712.40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21% 소계	99,945.70			합계:							159,127.53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사제관 포함)	48,347.83										중앙 은행 (Center Bank)
		관리수선비	75,502.26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세금 (급여세 & 재산세)	6,360.16		합계:	159,127.53								
		보험	30,610.50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소모품비(일반/사무실) & 도서구입	6,793.34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은행수수료(Bad Check/Currency)	76.00						합계:	159,127.53				
		차량유지비	3,714.01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장비 대여 (Equip./Rental)	7,124.52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비품/장비/악기 구입(EQ. & Furniture)	33,984.25									합계:	159,127.53	
		43% 소계	212,512.87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잡지출	가톨릭방송국 후원금	3,600.00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기부금(은퇴수도자/선교) & 경조사비	13,720.91	합계:										159,127.53
		친교장 인허가 비용(구비서류 보완)	4,066.00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특별목적: 아이티 진재/신학생 차량 구입	20,321.00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9% 소계	41,707.91	합계:					159,127.53						
	예비비	항공 요금: 본당수도자 한국방문(모친병환)						1,950.00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0.4% 소계						1,950.00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 of Income	지출총계	교무금구좌 경상 순 지출: 93%						455,880.33			지출총계			
2010년 결산		교무금구좌 순 지출 결산: 잔액 7%						36,444.01			2010년 결산 % of Income -0.1%			(190.52)
12 / 31 / 2010기준 교무금 은행 잔고(Wilshire Bank)		226,459.84					12 / 31 / 2010 기준 성전헌금 은행 잔고							
미 지불 체크(Uncleared Checks & Payments)		16,562.35					중앙 은행 (Center Bank)				3,500.00			
참조: 주일학교 기금(Sunday School Fund) 입출금		-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155,627.01							
Petty Cash 보관		200.00		합계:			159,127.53							

12 / 31 / 2010기준 Loan Balance: USD

1,625,100.03